



Policy Brief

November 2019

지정학적 갈등과 지역무역협정

박인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세계화 그리고 탈세계화시대

지역무역협정의 역할

20세기 중반 이후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교역비용이 괄목하게 감소하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20세기 후반 국경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이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 및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참여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통해 후생증진을 지향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체결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의 심화와 자유로운 교역이 창출하는 이득의 국내 이해당사자 간 그리고 국가 간 불균등 배분에 따른 이해충돌, 자본, 노동 및 기술로 대변되는 생산요소의 안전장치 없는 이동에 따른 부작용, 경제외적 갈등요인 등으로 브렉시트, 미중 간 무역분쟁, 그리고 한일 간 수출관련 규제의 강화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교역을 위축시키는 탈세계화의 움직임으로 새로운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그 추진력을 잃고 있으며 기존 협정의 경우에도 참여국 간 재협상이란 진통으로 그 기대되는 순기능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자국의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여 세계화 추세를 역주행하는 국제통상정책의 기조변화로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화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할 때 팽배하고 있는 보호무역정책의 부정적인 부메랑 효과에 대한 강력한 경고 역시 그 우려의 목소리에 더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탈세계화 움직임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체 형성의 중요성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즉 20세기 후반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자유로운 교역의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세계화의 주도적인 정책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21세기 지역무역협정은 경제협력을 통해 관련국 간 무역관련 분쟁 또는 지정학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그 역할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실례로 동아시아 역내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3년 시작된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체결을 위한 협상이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 예상되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련국들의 이해의 일치로 그 협상이 급속도로 추진되어 2019년 11월 4일 태국의 방콕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국 정상들이 협정문에 사인하여 2020년 그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일 외교장관과의 회동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제안한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 형성을 통해 중국의 중개로 최근 팽배하고 있는 한일 간 지정학적 갈등해결을 모색하고 한일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약화된 중국의 입지를 높이려는 정책적 시도 역시 주목받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으로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후생증진효과)의 크기와 관련국 간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의미있는 수준의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역내외 국제관계 및 통상환경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동아시아 역내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와 체결가능성을 한 사례로 살펴봄으로서 예상되는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이란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때 한중일이 과연 3국간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파트너인지를 살펴보고, 3국 간 성공적인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파트너십의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정학적 갈등과 지역무역협정의 기대효과

과연 한중일 FTA가 역내갈등을 완화시켜 의미있는 수준의 긍정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경제협력체로 나아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다면 2003년 민간 중심의 공동연구가 시작되고 2012년 3국 간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15차례 걸친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그 가시적 성과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 위한 제 조건들을 정성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한중일 FTA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조합의 지역무역협정들은 협정체결이전 참여국들의 시장규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차이, 주요 산업 간 경쟁구조, 역내 무역비중, 지리적 거리에 따른 거래비용, 경제발전 격차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 할 때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역내시장이 통합될 경우 규모의 경제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의미있는 수준의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Park, 2020).

구체적으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CGЕ Mode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사전적으로 정량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3국 간 FTA로 3국의 후생수준이 한국의 경우 1.7%~5.0%, 중국의 경우 1.0%~2.5%, 그리고 일본의 경우 0.5%~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로 평가할 때 한국의 경우 2.25%, 중국의 경우 2.31%, 일본의 경우 0.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찬, 2010).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면 한중일 FTA의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은 3국 간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로 그 무역 자유화의 기대효과가 과대평가 되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중일 간 역사해석의 견해 차이와 영토분쟁 등으로 일정 수준의 긴장감이 존재할 경우를 가정하여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앞서

제시한 CGE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참여국 간 갈등으로 인한 한중일 FTA의 긍정적인 후생증대 효과는 갈등이 부재할 경우에 비해서 한중일 각각 24%, 49%, 그리고 1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GDP 증가의 감소폭은 각각 13%, 48%, 그리고 2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Park, 2014). 물론 지역무역협정의 참여국 간 내재하는 갈등의 정도와 이 갈등이 초래하는 추가적인 거래비용의 정량화는 방법론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나 그 실험적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는 지대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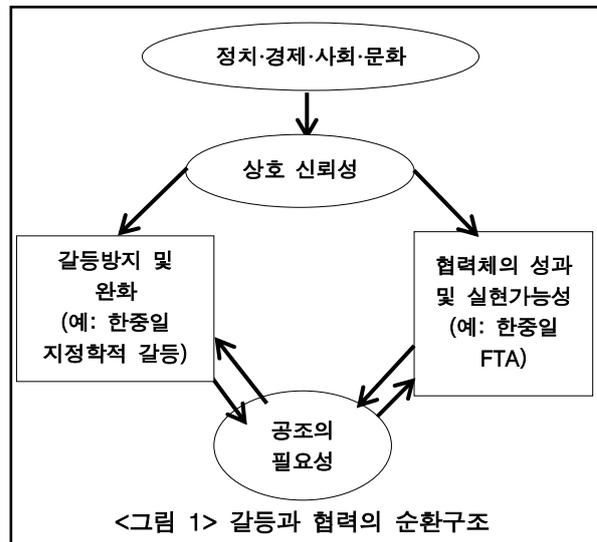
이에 근거하여 과연 한중일이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파트너인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이는 왜 이제까지 크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가 체결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파트너가 되기 위한 3국간 정책적 공조를 위한 논의의 시초를 제공할 수 있다 판단된다.

파트너간 근접성과 지역무역협정의 실현가능성

상기 논의된 파트너 간 갈등은 파트너 간 신뢰의 결핍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신뢰의 부족은 정치·사회·문화적 근접성에 좌우된다 하겠다. Park and Park (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한중일 간 정치·사회·문화적 근접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규모와 지리적 거리 등 경제적 근접성만을 고려하여 계량 분석한 결과 한중일 FTA의 실현 가능성은 55%이나 한중일 간 안보협력 및 민주화 정도 등 정치적 근접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50%로 떨어지고, Hofstede et. al. (2010)에서 소개된 문화차원이론을 적용하여 구성원 간 문화적 근접성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그 실현가능확률이 47%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정치·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파트너 간 상호 신뢰의 부족은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유발하여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를 감소시켜 그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중일 FTA 사례로 살펴 본 지정학적 갈등과 지역무역협정의 파트너십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근접성에 크게 영향 받는 파트너 간 신뢰는 직접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을 방지하거나 해소하며 지역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협력체 형성의 긍정적인 효과와 그 실현 가능성을 제고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역내국가 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매개로 지역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협력체 형성과 지정학적 갈등의 완화 및 방지효과가 상호 선순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일보하는 승수효과 (Accelerator effect)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판단된다 (<그림 1> 참조).



그렇다면 한중일이 과연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과 선순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경제적 근접성만으로 평가하면 한중일은 경제협력을 통해 의미있는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파트너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치·사회·문화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한중일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바람직한 파트너라 평가하기 곤란하여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힘들고 그 실현 가능성 역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중일 3국 간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교육·문화 교류의 확대와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 및 공조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971년 중국시장 개방을 선도한 미국의 핑퐁외교 그리고 1954년 시작된 이래 2019년 까지 60여년동안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유럽국가 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일조한 Eurovision Song Contest는 역내 문화교류의 좋은 사례라 하겠다. 유럽국가 간 대학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인 Erasmus (EuRopean Community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Program과 한중일 3국 간 대학교육 교류협력인 CAMPUS 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Program 역시 역내 젊은 세대간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사회·문화적 근접성을 높이는 교육분야 협력의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교류의 확산을 통해 직접적인 갈등해소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협력체 형성의 순기능을 제고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중심의 사회·문화·교육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적인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한중일 3국의 정책공조를 위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ASEAN 지역무역협정인 AFTA(ASEAN FTA)를 통해 공동의 이익으로 연계되어 있는 ASEAN 10국이 ASEAN+3, APEC 또는 G20 정상회담과 같은 다자차원의 교류의 장에서 긴밀하게 공조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한중일 역시 한중일 FTA, 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등 한중일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 논의에서 3국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책공조에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공조의 다른 방안으로 한중일 3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역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문제 또는 역내 해양자원의 보존문제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도 지정학적 갈등 해소와 공동의 이익추구의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박순찬, 2010,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부록 2, 전홍택·박명호 편,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연구보고서 2010-04, KDI, 부표 2-1, p. 164.
2. Hofstede, G., G. J. Hofstede, and M. Minkov,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3rd Edition), McGraw-Hill: New York.
3. Park, Innwon, 2014, "Impacts of Trilateral Conflict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A CGE Mode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Technical Workshop on *Impacts of Trilateral Conflicts between the PRC,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Tokyo, Japan.
4. Park, Innwon and Soonchan Park, 2020, "Socio-Political Determinants of Interdepend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An Empirical Application," *Singapore Economic Review* (forthcoming).
5. Park, Innwon, 2020,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Past and Future," *Development Policy Review* (forthcoming).

저자 정보

박인원 교수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국제학부에서 국제통상 및 동아시아 경제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아태 역내 통상협력의 현상과 전망에 관한 실증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iwpark@korea.ac.kr)